

부흥의 원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Revival

임영효

신학과 교수, 신학박사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Revival

1. 서론 (Introduction)	58
2. 부흥의 정의 (The Definition of Revival)	59
3. 부흥의 원형으로서의 오순절 (Pentecost as Prototype of Revival)	61
4. 부흥의 단회성과 빈복성에 관한 견해들 (Opinions concerning Occurrence of Revival)	62
5. 부흥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God's Sovereignty and Men's Responsibility in Revival)	67
6. 부흥에 있어서의 기도의 위치 (The Place of Prayer in Revival)	68
7. 부흥의 목적 (The Purpose of Revival)	69
8. 부흥의 특징 (The Characteristics of Revival)	71
9. 부흥의 결과 (The Results of Revival)	73
10. 부흥을 위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 (Preparedness of Christians and Church for Revival)	77
11. 결론 (Conclusion)	79

임영호 교수

고신대학교 및 동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Div.)학위 취득.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신학석사(Th.M.), 선교학 전공으로 선교학 박사(D. Miss.),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의 기초에 관한 선교학적 연구"로 선교신학을 전공하여 철학박사(Ph.D.)학위 수여받음.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과 실천신학 및 선교학 담당교수인 동시에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서 교회성장학 주임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쿰란출판사), 「성경교사와 설교자를 위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연구」, 「도서출판 영문」 「건강한 교회, 행복한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사역자」(도서출판 영문), 논문으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부흥" "선교와 교회성장의 원천으로서의 부흥(영문)"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요인" "바울의 선교사역에 대한 고찰" "성육신적 전도방법에 대한 고찰"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리"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의 원리" "효과적인 사역의 모델로서의 팀사역에 관한 연구" "영적 지도력과 사역개발" "문화적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 등 다수가 있다.

yhim@kosin.ac.kr

요약문 :

본 논문은 21세기 기독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영적 가치의 혼돈, 교회본연의 사명수행능력의 약화, 영적 무기력함,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의 상실, 사이버 이단 종교의 발호, 복음전도와 선교의 위축현상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정한 부흥이 요청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이 진정한 부흥의 원리들을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부흥이 교회의 양적 성장이나 어떤 특별집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부으심을 통한 영적 각성이라고 정의되어질 수 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의 성령 부으심의 사건이 진정한 부흥의 원형으로 보아야 하면 모든 시대의 부흥의 사건들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의 반복으로 보아야만 한다.

부흥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견해는 알미니안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며, 이와는 달리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의 견해이다. 이 두 번째 견해는 교회 역사상에 일어났던 여러 부흥의 사건들에 대한 설명과 이해에 부합되는 견해이며 사도행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계속적인 성령부으심의 사건들의 설명에 부합되어진다.

진정한 부흥은 결코 인간이 주도할 수 없으며 어떤 규칙을 정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자동적으로 부흥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어느 한편이 다른 편을 파괴함이 없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부흥의 영역에도 적용되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회개와 지속적이고도 연합된 기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흥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진정한 부흥의 전조라고 볼 수 있다.

부흥의 목적은 (1)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기 위함이다. (2)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능력있는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3) 세상의 관심을 끌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4) 핍박이나 전쟁 등 다른 시련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격려하시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며,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주며, 복음전도를 가속화 시키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21세기의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부흥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부흥의 근본 동인이 되시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거나 소멸하는 모든 삶과 행위에서 돌이켜서 성령 충만을 시모하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부흥을 열망하는 자세를 지녀야만 한다.

주요어 :

부흥, 전도,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기도, 영적 각성, 오순절

Abstract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Revival

This paper aims to solve numerous kinds of problems with which modern churches confronted in the 21 century; e.g. the confusion of spiritual values, the weakening of performing ability of original mission of a church, spiritual lethargy, the loss of Christians' morality, the rise of heresies, and the withering of evangelism and missions, and to claim the need of real renewal for the revival of the proper role and function of a church, and finally to investigate this revival principles through the Bible and the church history.

The meaning of revival tends to be misunderstood as referring to quantitative growth of churches or a special conference, however, the Bible defines it as spiritual awakening of churches and Christians through supernatural calling of the Holy Spirit which is done by Sovereign God.

Especially, the pouring event of the Holy Spirit on the Pentecost Day written in Chapter 2 of Acts should be regarded as the original form of the authentic revival, and revival events which took place through the ages should be regarded as repetition of the Pentecost Day. The opinion that revival can be repeated by our efforts is from the Arminian's perspective. Whereas, the opinion that revivals can be repeated only by God's sovereignty is from the Reformed perspective. The second perspective conforms to the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of several events that took place in church history, and to the repeated pourings of the Holy Spirit shown in Acts.

The true revival cannot be possible by human being, who cannot make any rules, because everything is under the control of God. Accordingly, it is wrong to say that if men satisfy any suitable conditions, they will automatically be able to witness revival. We should also remember the fact that it is non-biblical to say that we should only wait until God works, with too much emphasis on God's sovereignty. Accordingly, the principle that God's absolute sovereignty and men's responsibility coexist without destroy each other can be applied to the realm of revival. The complete obedience and repentance and continual and united prayer can be regarded as the prediction of the authentic revival, because these make environment of revival God sent.

The purpose of revival is (1) To renew and regenerate the church as it should be by revealing God's glory and ability. (2) To make God's people capable witnesses for the Lord Jesus Christ and His salvation mission. (3) To attract the attention of people in the world and save them. (4) To prepare and encourage God's people before persecution and wars and other trials begin.

In conclusion, the true revival in 21 century means to renew God's word, make saints as saints, accelerate evangelism, and change the societies. Therefore, modern churches and Christians should recognize the need and urgency of the revival, turn back from all the lives and behaviors to trouble or nullify the Holy Spirit, the fundamental agent, and equip the attitudes of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and revival of church and Christians.

Keywords: Revival, Evangelism, the Sovereignty of God, Man's Responsibility, Prayer, Spiritual awakening, Pentecost

1. 서론*

(Introduction)

오늘날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교회들은 점점 영적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교회 구성원들의 수도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세상은 더욱 악하여져가고 있기에 진실로 세상에 영적 영향을 줄 수 있고, 현재의 교회들에 생명을 불어 넣으며, 철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과 활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J. I. 패커(Packer)가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의 「부흥(Revival)」이라는 저서의 서문에서 “본서에 실린 설교들은 교회의 부흥이 없이는 세계에 소망이 없다는 그의 굳은 확신을 입증해 주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부흥”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부흥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 용어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 채 부분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흥을 교회성장이나 어떤 연속적인 특별집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안 머레이(Iain H. Murray)는 “이처럼 부흥에 대하여 그렇게도 많은 관심과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아직까지 이 단어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불명확한 채로 남아있다”고 이 사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¹⁾ 그는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단어가 아니라 사건 자체(thing itself)이다... 결국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부흥의 현상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이며, 그런 불일치가 남아 있는 한 단순히 그 용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한다고 해서 논쟁을 종식시키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부흥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고찰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²⁾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흥의 정의, 부흥의 원형, 부흥의 단회성과 반복성에 관한 견해들, 부흥에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부흥에서의 기도의 위치, 부흥의 목적, 부흥의 특징, 부흥의 결과 그리고 진정한 부흥을 위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준비가 무엇이어야 함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부흥의 정의

(The Definition of Revival)

부흥(Revival)은 “교회를 각성시키는 성령의 부으심”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각성(Awakening)이라는 단어가 부흥의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패튼(W. W. Patton)은 “교회의 부흥(Revivals of Religion)”이라는 글에서 부흥이란 “성령의 섭리 가운데 어느 한 장소에 특별한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³⁾ 리차드 한(Richard De Hann)은 “믿는 자들

* 본 논문은 논문집필자의 영어논문 “A Missiological Study on the Foundations of Missions and Church Growth in the Book of Acts”의 Chapter 8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내용임.

1) Iain H. Murray, *Pentecost-Today?: Biblical Basis for Understanding Revival*,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8), p. 1.

2) Ibid., pp. 2, 4.

3) Ibid., p. 5.

의 삶 속에 죄를 깨우치시고 그들의 무기력함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이라고 말하고 있으며,⁴⁾ 이안 머레이(Iain Murray)는 "부흥은 성령의 부으심이며,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교회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불신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나가는 은혜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비상하신 교통하심이며, 성령의 형언할 수 없는 풍성한 역사하심이며, 그의 능력이 뚜렷하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⁵⁾ 팩커(J. I. Packer)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영적 사망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믿음을 전달하시고 활기없이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역사"라고 정의하고 있다.⁶⁾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는 "부흥은 하나의 이적이다. 그것은 이적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주님의 손길이고, 능하신 주님의 일이다. 다른 말로 부흥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나 간섭이라고 해야만 바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⁷⁾ 따라서 부흥이란 한 개인 혹은 동시에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부으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Richard De Haan, *How To Have a Revival*, (Grand Rapids: Radio Bible Class, 1993), p. 3.

5) Iain H. Murray, op. cit., pp. 23-24.

6) J. I. Packer, *A Quest for Godliness: The Puritan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1990), p. 36.

7) Martyn Lloyd-Jones, *Revival*, (Westchester, Illinois: Crossway Books, 1987), pp. 111-112.

3. 부흥의 원형으로서의 오순절 (Pentecost as Prototype of Revival)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의 성령 부으심의 역사를 진정한 부흥의 원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여러 신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어지고 있다. 에네스트 베이커(Ernest Baker)는 "예루살렘에서의 오순절 부흥운동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것이다. 모든 점에서 그것은 최고의 부흥운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다.⁸⁾

존 스토틀(John Stott)도 "오순절은 첫 번째 부흥(first revival)이라고 올바르게 일컬어져 왔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이례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심들 중의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 공동체가 그분의 직접적이고 압도적인 임재를 생생하게 인식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물리적 현상들(행 2:2 이하)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은 자각(행 2:37), 삼천 명의 회심자들(행 2:41), 그리고 널리 퍼진 두려운 마음(행 2:43) 등은 부흥의 표시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⁹⁾

로버트 콜만(Robert E. Coleman)은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부흥을 개시한 것이다(행 2:1-47). 그것은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올린 것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¹⁰⁾ 로이드 존스(Lloyd-Jones)는 "모든 신앙 부흥은 사실상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의 반복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부흥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¹¹⁾

8) Ernest Baker, *The Revivals of the Bible*, (London: The Kingsgate Press, 1906), p. 137.

9) John Stott, *The Spirit, The Church, and The World: The Message of Act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0), p. 61.

10) Robert E. Coleman, *The Spark that Ignites: God's Promise to Revive the Church Through You*, (Minneapolis, MIN.: World Wide Pub., 1989), p. 58.

11) Martyn Lloyd-Jones, op. cit., pp. 199-200.

패커(J. I. Packer)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의 모범으로 따르다면 우리는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자신의 나라를 넓히시고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본질적으로 집합적인 현상으로 정의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부흥의 모형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²⁾ 훌스(Hulse) 역시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뒤 따른 부흥들에 대한 설명이다. 많은 교회들이 설립되었다. 예를 들면, 고린도교회는 가장 강력한 부흥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오순절을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부흥(the first Christian revival)”으로 언급하고 있다.¹³⁾

4. 부흥의 단회성과 반복성에 관한 견해들 (Opinions concerning Occurrence of Revival)

(1) 부흥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비성경적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이다. 이 입장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통하여 신약교회는 이미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성령 부어주심의 의미로서의 부흥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한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카이퍼(Kuyper)는 “또 다른 부어주심이나 성령세례를 간구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참된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기도는 실제로 오순절의 기적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내주하시는 그 분은 또 다시 우리에게 오실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⁴⁾ 프레드릭 부루너(Frederick D. Bruner)도 성령세례는 오직 오순절 사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순절의 ‘복사판’이나 ‘작은 오순절’ 등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이 첫 번째 견해를 주장했던 카이퍼(Kuyper)는 더욱 충만하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대했지만 그도 부흥의 역사를 인정하는 글을 썼는데, 네덜란드 보브리지(Woubrugge) 마을에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에 대하여 “마침내 9년이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주님은 [한 젊은 농부 클라스 잔스 폴더바르트(Klaas Jansse Poldervaert)]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시작했다. 놀랍고 충격적인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고, 매 주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기 위해 인근 지역으로부터 몰려왔다...나는 이 부흥을 비상한 것이라고 불렀다”라고 기술한다.¹⁶⁾

(2) 부흥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의 대표적인 인물은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이다. 그가 쓴 「진정한 부흥(Lectures on Revival)」에서 “부흥은 적절한 수단들을 써서 얻을 수 있는 농작물처럼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만약 올바른 수단이

12) J. I. Packer, op. cit., p. 36.

13) E. Hulse, *Give Him No Rest*, (Durham, England: Evangelical Press, 1991), pp. 66, 72.

14) Abraham Kuyper, *The Work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Eerdmans, 1956), p. 127.

15) Frederick D.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Eerdmans, 1970), pp. 169-170.

16) Iain H. Murray, op. cit., p. 27.

지속적으로 주어지기만 한다면 부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⁷⁾ 이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한다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견해에 속하지만 부흥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회개와 갱신된 개인의 거룩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20세기 초 중국의 선교사 조나단 고포드(Jonathan Goforth)를 들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때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욕먹어야 할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헌신된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 부흥은 언제나 가능해야 한다. 헌신되지 않은 자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흥을 쫓아 버릴 수 있다... 반면에 우리는 오순절의 감동을 재현할 수도 있다. 만약 부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우상이 아직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이와 같은 견해를 지닌 사람이 던컨 캠벨(Duncan Campbell)인데, 그는 “부흥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 도처에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사도행전의 오순절 초대교회와 같을 수 없는 어떤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이에 답하기를 “우리가 만일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일정한 법칙과 원리를 잘 연구하고 살펴본다면 얼마든지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노력에 의해 성령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회개와 복종 그리고 헌신을 말하면서 “완전한 헌신은 축복의 장소이며 또한 부흥의 뗏가이다”라

고 주장하였다.¹⁹⁾ 그러나 인간의 회개와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하여 반드시 부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교회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결국 이 두 번째 견해는 인간의 책임의 영역에 치우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그의 몸된 교회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부흥의 특별한 역사가 오순절이후 여러 시대에 일어났고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의 대표적인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인데 그는 “비록 성령께서 당신의 법을 따라 좀더 지속적인 역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시대라고 부르는 그 특별한 시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²⁰⁾ 옥타비우스 윈슬로(Octavius Winslow)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성령이 비상하게 부어지는 기간 동안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속 깊이 성령의 인치심을 느끼고, 죄의 용서와 회개에 대해 보다 선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보통 때에 일어나는 회심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더 위대하고 더 풍성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형언할 수 없는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 드러내 주시는 것이다.”²¹⁾ 마틴 로이드존스(Martyn Lloyd-

17) Charles G. Finney, *Lectures on Revival*, (Old Tappan, J.N.: Revell, n.d.), pp. 5, 534.

18) Jonathan Goforth, *By My Spirit*, 3rd ed.,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n.d.), pp. 181, 189.

19) Duncan Campbell, *The Price and Power of Revival*, (London: Scripture Illustrations, 1956), pp. 40, 53-54.

20) Iain H. Murray, op. cit., p. 24.

21) Octavius Winslow, *The Work of the Holy Spirit*, (London: Banner of Truth, 1961), p. 141.

Jones)도 말하기를 “사람들은 그 부흥을 주도할 수 없다. 시작도 갑작스럽고, 끝나는 것도 갑작스럽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가 모든 법칙과 조건을 다 지키기만 하면 부흥을 산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을 자기 손에 쥐고 계신다. 부흥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을 다 주관하신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과 그 권능에 의존해 있다” 라고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아래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이 세 번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²²⁾

이 견해는 교회 역사상에 일어났던 여러 부흥의 사건들에 대한 설명과 이해에 부합되는 견해이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부흥의 역사 이후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의 또 다른 성령 충만의 역사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아나니아의 안수로 일어났던 사울을 향한 개인적인 성령충만의 역사와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기록되어진 고넬료의 가정에서의 성령 부어 주심의 사건 등 계속 이어지는 성령 부어심의 역사들에 대한 설명에 부합되어지는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리차드 라브리스(Richard F. Lovelace)는 사도행전 4장에서의 성령충만의 역사를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에 대한 또 다른 반복으로 보면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계속적인 교회갱신을 위한 모델들로 보고 있다.²³⁾

22) Martyn Lloyd-Jones, op. cit., p. 115.

23) 그의 저서 *Dynamics of Spiritual Life: An Evangelical Theology of Renewal*,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9), pp. 49, 52, 125를 보라.

5. 부흥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God's Sovereignty and Men's Responsibility in Revival)

이안 머레이(Iain H. Murray)는 “하나님의 주권과 부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부흥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과 부흥의 목적과 시간에 관하여 주권적임을 강조하고 있다.²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부흥을 주시는 대상의 상황에 따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상치 못한 시간에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때 자동적으로 부흥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과 교회역사가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는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온전히 그의 수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흥은 결코 인간이 주도할 수 없으며 어떤 규칙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부흥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 또한 성경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안 머레이(Iain H. Murray)는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가 회개나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²⁵⁾ 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회개와 믿음의 실천을 인간 편에서 행해야 할 책임의 영역에 두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을 파괴함이 없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부흥의 영역에도 적용되어진

24) Iain H. Murray, op. cit., pp. 70-74.

25) Ibid., p. 58.

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우리가 희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인식되어야 한다.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는 오늘날의 교회가 인간중심적 복음전도를 하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시대에 일어났던 위대한 부흥의 사건들을 까마득하게 잊어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말하기를 “부흥이 갈수록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은 칼빈주의의 쇠퇴 때문이다. 칼빈주의가 더 강력해진다면 우리는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바 있다.²⁶⁾

6. 부흥에 있어서의 기도의 위치 (The Place of Prayer in Revival)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흥에 대한 소원이나 기도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진 사례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²⁷⁾ 이안 머레이(Iain H. Murray)는 다음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비록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부흥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그 부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해야만 한다. 윌리엄 거널(William Gurnall)의 말처럼 ‘날이 밝으려고

할 때 닭은 가장 크게 운다.’ 그러나 닭이나 기도가 새벽을 오게 하는 원인은 아니다... 기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목적의 성취 여부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목적의 성취 여부가 절대적으로 주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다.”²⁸⁾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흥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진정한 부흥의 전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침체에 교회가 드러야 할 전형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하감하사 다시 한번 찾아와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이다. 그러나 기도하되 시간을 정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부흥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를 깨뜨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어야 할 때와 그것을 받기에 적절한 시기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회개와 기도와 순종의 요소들을 이루어 드리면서, 이 부흥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갈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정한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7. 부흥의 목적 (The Purpose of Revival)

(1)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

26) Martyn Lloyd-Jones, *The Puritans: Their Origin and Successors*,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7), p. 211.

27)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Iain H. Murray, op. cit., pp. 66-67을 참조하라.

28) Iain H. Murray, op. cit., pp. 68-69.

시키시고 소생시키기 위함이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2)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사역에 대하여 능력있는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행 1:8).

(3) 세상의 관심을 끌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부흥의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 사람들과 거기에 모인 모든 이방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사로잡힌 바 되어 “이 어쩐 일이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므로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이게 하므로 복음을 듣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다.

(4) 핍박이나 전쟁 등 다른 시련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격려하시기 위함이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역사가 해더링톤(W. M. Hetherington)은 스코틀랜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부흥의 시대는 “마치 고통스러운 기간들을 잘 견디어 낼 수 있는 충분한 강인함을 위한 경건한 삶의 원리를 교회에게 가르치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한 시련들이 시작되기 전에 예외없이 일어났다”라고 언급한바 있다.²⁹⁾ 또한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도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한 민족적인 시련과 억압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29) Ibid., p. 72.

8. 부흥의 특징

(The Characteristics of Revival)

(1) 일반적으로 부흥은 교회가 생명력과 활력과 능력을 상실하므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무감각하여 교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시기에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³⁰⁾ 이러한 시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다시금 교회가 새 힘을 얻어 활성화되어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음을 교회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다.

(2) 부흥이 일어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대한 인식,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놀랍다는 인식, 다른 사람들도 그 구원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 진다. “부흥은 언제나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며, 마룻바닥에 뒹굴게 하고,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며,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의 의식으로 가득 차게 한다.”³¹⁾

(3)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영광, 보혈의 능력과 같은 것들이 교회의 주제가 되어진다.

(4) 부흥이 주어질 때 사람들의 계층이나 나이, 기질이나 지적인 다양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감화를 받게 된다.

(5) 부흥은 영구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되다가 끝나는 한정된 역사이다. 부흥은 갑자기 혹은 점진적으로 와서 어떤 큰 절정에 이르게 된 후 갑자기 혹은 점진적으로 끝나게 되어진다.³²⁾

30) Martyn Lloyd-Jones, *Revival*, (Westchester, Illinois: Crossway Books, 1987), p. 27.

31) Ibid., p. 125.

32) Ibid., p. 106.

(6) 부흥이 시작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즉 부흥이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올 수도 있으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부흥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기도한 후 수개월 혹은 수년 뒤에 부흥이 올 수도 있으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부흥이 나타날 수도 있다.³³⁾

(7) 부흥이 임하는 집회 형태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즉 어떤 경우에는 불과 두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복음집회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³⁴⁾

(8) 부흥은 어떤 지역에 머물러 버릴 수도 있으며, 그 지방을 벗어나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온 나라 전체가 부흥에 휩싸일 수도 있다.³⁵⁾

(9) 부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설교 가운데 큰 능력과 자유와 권능이 주어지며, 교회가 큰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차게 되어진다는 것이다(행 2:14-36, 46-47).

(10) 부흥의 때에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확실한 지식이 현저히 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나 진다. 즉 “부흥의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내용들이 보다 생생하게 자신의 삶에 적용되는 것을 확연히 경험하게 되어진다.”³⁶⁾

33) Ibid., p. 108.

34) Ibid., p. 108.

35) Ibid., p. 110.

36) Iain H. Murray, op. cit., p. 87.

9. 부흥의 결과

(The Results of Revival)

부흥의 결과에 대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부흥의 결과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몰려들게 되며, 회심한 사람들은 계속하여 교회 안에 남아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어진다.

(2) 부흥의 결과로서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며 목회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대단히 많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3) 부흥이 일어날 때는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까지도 도덕적인 추세나 수준이 현저히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그 영향이 부흥이 끝난 후 여러 해 동안에 지속되어진다.³⁷⁾ 아더 윌리스(Arthur Wallis)는 “부흥은 필수적으로 사회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이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과 부흥을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³⁸⁾

이안 머레이(Iain H. Murray)는 부흥의 6가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³⁹⁾

37) Martyn Lloyd-Jones, *Revival*, (Westchester, Illinois: Crossway Books, 1987), pp. 106-108.

38) Arthur Wallis, *In the Day of Thy Power*, (London: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56), p. 23.

39) Iain H. Murray, op. cit., pp. 170-193.

(1)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킨다.

18세기 부흥시대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세와 내세에서의 가장 고상한 삶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말씀하시는 완전하고 흠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면서 진심으로 설교하였으며, 그들의 설교에는 힘이 있어 그들이 전한 복음은 수천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⁴⁰⁾ 이렇게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2) 부흥은 성도를 성도답게 한다.

“부흥의 시기에 강력하게 선포되었던 복음적인 설교들은 언제나 성경에 근거한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에 가장 주된 관심을 두었다... 교회와 세상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구원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해질 때, 부흥은 언제나 성도를 성도답게 해 주었다.”⁴¹⁾ 제임스 롱(James Robe)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부흥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죄를 미워함, 자기 의의 포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음, 모든 일에 주만 의지함, 철저한 삶의 개혁, 복되신 구세주에 대한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구령의 열정과 불신자들의 회심을 위한 기도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⁴²⁾ 이와같이 부흥은 성도의 성화에 가장 큰 자극제가 되어서 동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부흥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

40) Ibid., p. 174.

41) Ibid., pp. 176-177.

42) Ibid., p. 32.

(3) 부흥은 복음전도를 가속화한다.

부흥의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갑자기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행전과 그 후의 교회역사가 이를 증거해 주고 있다. “복음전도의 가속화는 언제나 부흥의 징표 가운데 하나였다... 교회의 사역이나 선교를 위한 노력들이 후원부족 때문에 위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인적 자원이 공급된 것은 바로 부흥으로부터였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대각성운동은 수천 명의 일꾼을 만들어냈다. 부흥이 일어난 지역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⁴³⁾ 따라서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사람이 자기의 조직을 가지고 50년 동안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1분 이내에 행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청난 가능성을 인식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⁴⁴⁾

(4) 부흥은 사회를 변화시킨다.

종교개혁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근면한 개신교 신자 정도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들로, 여성의 권리를 회복시킨 자들로, 전제정치로부터 자유를 위해 힘쓴 자들로 사회에 기여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⁴⁵⁾ 174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영향에 대하여 벤자민 트럼볼(Benjamin Trumbull)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심적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는 금, 은이 들어 있는 가방이나 다른 소중한 것들이 안전하게 길거리에 놓여져 있었으며, 아

43) Ibid., p. 179.

44) Martyn Lloyd-Jones, *Revival*, (Westchester, Illinois: Crossway Books, 1987), p. 122.

45) Iain H. Murray, op. cit., p. 181.

무도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둑질, 방자함, 무절제, 남용, 안식일 범함, 그리고 다른 모든 죄들을 멀리해야 할 것들로 생각했다.”⁴⁶⁾

(5) 부흥은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한다.

부흥의 때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견해나 판단에 좌우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한 목회자,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진리를 증거하고 실천하므로 모범을 보이는 이런 사역자들이 부흥의 시대에 배출되어진다는 것을 부흥역사가 가르쳐 주고 있다. 부흥의 때에는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강단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경계에 서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어진다.

(6) 부흥은 예배를 예배답게 한다.

부흥의 시대의 항상 존재했던 교회의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임재였으며, 이것이 회중들에게 경외감과 놀라움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참된 예배의 표지 가운데 하나는 침묵과 경외감이 반드시 기쁨과 열정적 찬양을 수반한다는 것이다.⁴⁷⁾ 이렇게 부흥의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구원의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적인 찬양과 영적 기쁨이 충만한 진정한 예배로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46) Ibid., p. 182.

47) Ibid., p. 192.

10. 부흥을 위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 (Preparedness of Christians and Church for Revival)

(1) 21세기의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부흥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교회와 개인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흥을 위해 인간 편에서 행하여야 할 책임의 영역을 이해하고 이를 겸손히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

(2)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며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그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로 초지일관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교회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부흥의 근본 동인이 되시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거나 소멸하는 모든 삶과 행위에서 돌이켜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부흥을 열망하는 자세를 지녀야만 한다. 존 오웬(John Owen)은 “성령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다. 그렇다. 성령을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더욱 열정적이고 효과적인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들 안에 있는 이 기름부음에 대한 열망이 더 명확하고 탁월해 질수록 그들은 더욱 신선하고 풍성한 기름부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⁴⁸⁾

48) Ibid., p. 121.

(4)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성경적 교리회복이 요청되어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한다.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는 “교회가 죽어 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 교회생활을 특징짓는 가장 주요한 사실은 교회가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중대한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⁴⁹⁾ 따라서 이안 머레이(Iain H. Murray)는 “부흥을 기다리며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회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⁵⁰⁾

(5)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 즉 부흥의 방해 요인인 불신, 자만, 하나님 말씀 거역함, 도덕적 방종, 기도하지 않음, 잘못된 확신, 형제들 간의 다툼의 문제들을 제거해 나가야만 한다.

(6) 인간의 모든 방법이나 조직을 과신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인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인식하여 진실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철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만 한다.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바로 그것이다.”⁵¹⁾

49) Martyn Lloyd-Jones, *Revival*, (Westchester, Illinois: Crossway Books, 1987), p. 35.

50) Iain H. Murray, op. cit., p. 78.

51) Martyn Lloyd-Jones, op. cit., p. 182.

11. 결론

(Conclusion)

오늘 21세기는 영적 가치의 혼돈과 극심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도덕적 불감증 등이 성행하고 기독교 가치관의 실종 속에 거짓종교와 각종 사이비 종교가 우후죽순처럼 번져가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이다.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기독교회를 조소하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일 것이다.

또한 자정능력을 상실한 한국교회 역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때 해결책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므로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회복과 영적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참된 부흥은 영광 중에 계신 구속주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분에게로 돌아가고, 그 분을 존귀케 하는 것임을 교회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의 얼굴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불꽃이 일어남으로써 생명과 영광과 광채로 빛나는 원래의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참된 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흥을 통하여 교회를 무장시키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부흥이 없었다면 기독교회는 수세기전에 죽어서 끝났을 것이다”

⁵²⁾ 라고 부흥의 중요성을 지적했던 로이드 존스의 언급대로 참으로 부

52) Martyn Lloyd-Jones, *Joy Unspeakable: Power & Renewal in the Holy Spirit*, (Wheaton, Illinois: Harold Shaw Publishers, 1984), p. 275.

흥이야말로 현 시대의 가장 긴박한 요구이기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할애하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와 영광과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반역과 어리석음과 미련한 교만과 죄악의 수치를 인정하고 완전히 겸비한 자세로 공홀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기도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해서 부흥의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찾아오는 최상의 축복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9세기의 유명한 성경 강해자였던 알버트 반즈(Albert Barnes)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부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그 날은 교회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며, 오순절에 나타난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남을 예고하는 날이 될 것이다”⁵³⁾ 라고 언급한대로 이런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3) Martyn Lloyd-Jones, *Revival*, (Westchester, Illinois: Crossway Books, 1987), p. 93.

참고도서

- Baker, Ernest. *The Revivals of the Bible*. London: The Kingsgate Press, 1906.
- Bruner, Frederick D.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Eerdmans, 1970.
- Campbell, Duncan. *The Price and Power of Revival*. London: Scripture Illustrations, 1956.
- Coleman, Robert E. *The Spark that Ignites: God's Promise to Revive the Church Through You*. Minneapolis, MIN.: World Wide Pub., 1989.
- De Haan, Richard. *How To Have a Revival*. Grand Rapids: Radio Bible Class, 1993.
- Finney, Charles G. *Lectures on Revival*. Old Tappan, J.N.: Revell, n.d.
- Goforth, Jonathan. *By My Spirit*. 3rd ed.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n.d.
- Hulse, E. *Give Him No Rest*. Durham, England: Evangelical Press, 1991.
- Kuyper, Abraham. *The Work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Eerdmans, 1956.
- Lloyd-Jones, Martyn. *Joy Unspeakable: Power & Renewal in the Holy Spirit*. Wheaton, Illinois: Harold Shaw Publishers, 1984.
- _____. *Revival*. Westchester, Illinois: Crossway Books, 1987.
- _____. *The Puritans: Their Origin and Successors*.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7.
- Lovelace, Richard F. *Dynamics of Spiritual Life: An Evangelical Theology of Renewal*.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9.
- Murray, Iain H. *Pentecost-Today?: Biblical Basis for Understanding Revival*.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8.
- Packer, J. I. *A Quest for Godliness: The Puritan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1990.
- Stott, John. *The Spirit, The Church, and The World: The Message of Act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0.
- Wallis, Arthur. *In the Day of Thy Power*. London: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56.
- Winslow, Octaviu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London: Banner of Truth, 1961.